

패션디자인의 문양에 있어서 기초조형요소의 표현내용

Representation Contents of Basic Design Elements in Patterns of Fashion Design

조정미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Jung-Mee Cho(jungmee@catholic.ac.kr)

요약

본 연구는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표현된 문양에 있어서 기초조형 요소를 응용한 사례 및 경향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인교육 분야에서 기초조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2010까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들 중에서 기초조형의 요소인 점·선·면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주요 작품의 경향과 특성을 조사하고 대표적인 작품들을 기초조형의 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특히 2000년 s/s컬렉션 이후 2004 s/s를 까지를 중심으로 기초조형의 기본요소를 기본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유행하였다. 디자이너 Jil Sander, Bill Blass 등은 점 구성을 위주로 공간감과 중량감, 질감을 변화한 작품을 보여주었다. I.S. Sunao Kuwahara, 등은 다양한 질감의 선과 선구성을 응용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Vestium Officina, Loewe, 등은 선을 통한 면 분할이나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면 구성을 위주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 중심어 : | 기초조형요소 | 패션디자인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presentation of basic design elements in patterns of fashion design by analyzing the examples and trends of how basic design elements have been represented in major collections of fashion designers, thereb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basic design elements i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edu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utilizing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principles of basic design elements, we have analyzed the examples and trends of representation of basic design elements, focusing on the design works of fashion designers from the 2000 collections to the 2010 collections that can be viewed to have been directly inspired by three basic design elem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was a popular trend of emphasizing basic design elements as a design motif particularly from the 2000 s/s collections to the 2004 s/s collections. In these collections, we have found a wide range of design works that were inspired by the three basic design elements of dots, lines, and faces. Designers such as Jil Sander, Bill Blass, ..., etc. produced diverse designs that emphasized dots with various feeling of space, weight and texture. The collections by I.S.Suano Kuwahar, ..., etc. were based on the concept of coordinating the design element of lines with various textures. Vestium Officina, Loewe, ..., etc. produced the designs where faces were divided by lines in various ways and various forms of faces were decorated with diverse colors.

■ keyword : | Basic Design Elements | Fashion Design |

* 본 연구는 2010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11108-009

접수일자 : 2011년 11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1월 06일

교신저자 : 조정미, e-mail : jungmee@catholic.ac.kr

I. 서론

최근 디자인의 여러 분야에서는 국내 뿐 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디자이너를 양성하여 국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멀티디자이너로서 타 분야에도 언제든지 대응 가능하며 다른 새로운 디자인의 영역을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창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기초조형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시장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류학 분야에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패션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교육에서 보다 질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특히 실용성을 중시하는 상업디자인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기초조형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

패션디자이너들도 매 시즌 제시 할 디자인의 영감을 얻기 위해 고심한다. 다양한 디자인의 아이디어 중 그들이 디자인 교육에 가장 먼저 접했던 기초조형 원리나 요소는 그들에게 항상 좋은 소재가 된다. 한편으로 기초조형의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은 디자이너들의 조형능력을 보여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트렌드에 상관없이 완벽한 조형미의 시도로 인정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렌드를 이끌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의 기초조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패션디자이너 교육에서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기성 패션디자이너의 작품 중에서 기초조형적 접근 과정을 응용한 사례 및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2000년대 이후 2010까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들 중에서 기초조형의 요소인 점·선·면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얻었다고 간주 할 수 있는 주요 작품의 경향과 특성을 조사하고 주요 작품들을 기초조형의 개념 및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00년대 이후 2010년까지 Paris, Milano, London, NewYork, Tokyo의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에서 발표된 작품들 중 기초조형 요소를 응용한 작품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중 특징적인 주요 작품들

을 선정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트렌드 잡지인, Fashion News, Gap Press, Collezioni Donna, Book Moda등이 사용되었다. 분석에 선정된 작품들은 기초조형이론의 적용 의도가 확연이 들어난다고 사려되는 작품들로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가 3인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였다. 1차 선정 결과 150여개 정도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나 질적인 분석에 더 비중을 두고 요소나 원리가 중복 되는 작품들 중 대표적이고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57개 작품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전체조사 대상 중 기초조형요소를 직접적으로 응용했다고 간주 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조사되었지만,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옷 전체를 하나의 공간개념으로 보고 문양화한 기초조형의 개념이 강한 작품들에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였다. 반면 도트나, 체크문양 처럼 텍스타일디자인의 일반적 패턴으로 양식화 된 것은 제외하였으나, 이중 독창적으로 변형되어 표현 방식이 주목 할 것은 분석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것이나 특정 작품에 국한 하여 논의 하였다. 이는 향후 이 연구결과가 패션디자인교육에서 기초조형교육의 표본 자료로 사용될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기초조형 이론서 및 논문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과 개념을 적용하여 작품의 경향 및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패션디자인에서 기초조형의 구체적인 활용여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패션디자인에 적용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초조형의 원리 및 개념을 파악하여, 창의력과 조형능력, 문제 해결능력과 사고력을 겸비한 유능한 패션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패션디자인의 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사려 된다.

II. 기초조형의 주요 개념 및 이론

조형이란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관념에서의 형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2차원, 3차원 또는 다차원의 시·공간에서의 가시적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형예술은 대체로 물질적 재료를 써서 사물을

유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만이 성립되며 시각을 통한 감각과 정서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1]. 본 연구는 기초조형의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현대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기초조형의 요소 및 원리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조형의 주요 개념 및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초조형 요소

조형작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평면조형의 기본 요소인 개념요소(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 구성요소(조형의 중국적 외향)를 꾸미는 시각요소, 구성전반의 시각요소에 내적 상호관계를 좌우하는 공간요소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념 요소는 점·선·면·양의 요소이고 시각요소는 위치·방위 공간·중량감을 뜻한다. 구성요소란 정점·모서리·면의 요소로 지칭할 수 있는데, 이들 상호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입체 조형의 기능과 역할이 확실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조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갖는 여러 가지 변화는 형태의 변화, 방위와 방향의 변화, 구조적인 기교, 공간의 활용, 모서리 면 정점의 처리 접합관계, 반복에 다른 변화와 색채, 재료의 대비 감각을 통한 기초조형 이론으로서 그 전개가 가능하게 된다[2].

이러한 요소들은 각기 하나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나 대개는 각 요소가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지배적일 수 없다. 즉 각 요소간의 조화와 대비는 전체적인 감상의 전달에 필요한 요소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3].

2. 기초조형 원리

조형의 원리란 조형의 시각적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결합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심미적인 연관 법칙이나 구성계획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상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가 어떠한 질서를 가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디자인의 원리라고도 하며, 점, 선, 면, 형, 방향, 색채, 질감, 양감, 크기등 서로 다른 요소들이 표현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미의 규칙이다[4]. 특히 그 형식은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져야만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디자인의 독창성이 찾아져야 하는 까닭에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원리들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디자인이 의미 있는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조형의 원리를 습득하여 조형적 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 되는 조형의 원리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일, 반복, 조화, 균형, 비례, 주조, 점, 대비, 리듬, 강조, 공간, 변화의 원리로 요약 될 수 있다[4].

3. 기초조형 이론

형태란 구조를 가진 어떤 것을 말하는데 ‘전체적 형상’ 혹은 ‘조립’이라는 뜻으로 그것은 도형일 수도 있고 멜로디 또는 동작일 수도 있다. 형태는 영어로 ‘shape’, 독일어 ‘gestalt’, 불어로 ‘forme’로 ‘번역되는데, 다른 자극을 받아 수용된 것이 우리 내부의 심리적 메카니즘에 따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형태에 대한 심리학적 메카니즘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게슈탈트의 원리가 있다. 형태의 인식에 대하여 지각심리학자(게슈탈트 심리학과)들인 베르트하이머(M. Wertheimer), 쾰러(W. Koehler), 코프카(K. Koffca)는 인간이 통일과 조화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지닌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인간은 각각의 형상들을 단순한 부분이 아닌 의미 있는 전체로서 조직 하므로서 시각적인 형태를 인식한다고 하였다. 특히 베르트하이머는 우리들이 보는 대상이 물체로 지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의 조건에 따라 형으로 간추려진 느낌이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심리학 적으로 연구했고 근접성(proximity), 폐쇄성(closure), 유사성(resemblance), 연속성(good continuation), 단순성(stereospecific symmetry)의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다섯가지 요인들은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쓰이든 상호 결합해서 쓰이든 간에 형태를 고립되고 무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전체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조형이론은 ‘게슈탈트의 법칙 혹은 원리(Gestalt Theory)’라고 불리면서 ‘최대 질서의 법칙’이라고도 한다[5][6]. 이 원리는 우리가 만든 조형의 시각적 인지과정 전반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이너들은 이 원리를 직접적으

로 조작하여 조형적 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우연한 시도에 의해 작품에 적용되기도 한다.

III. 기초조형 요소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문양 연구

2000년도 이후 2010년 까지 프레타 포르테에서 발표한 작품들을 살펴 본 결과, 특히 2000년 s/s시즌에서 2004년s/s시즌에 점·선·면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제시되어 트렌드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디자이너들이 표현한 작품들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점구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문양

일반적으로 점은 하나의 위치를 표시하며 길이나 폭이 없는 개념으로 얘기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크기가 크거나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점의 기능을 할 수 있다[4].

Jil Sander는 옷이라는 입체공간에서 점의 위치 변화에 따라 공간의 변화 모습과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1]. Cividini의 작품은 원의 크기의 변화에 따라 심리적 중량감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옷의 테두리에 걸쳐져 있는 원의 형상은 활동감을 주고 공간이 옷이라는 틀 밖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그림 2].

Bill Blass는 크기차이가 있는 비교적 작은 점을 여러 개 배열하여 면적에 대비한 균집된 점의 균형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점의 배열에서 보여지는 확산감과 방향성이 표현되었다[그림 3].

일반적으로 점은 원으로 표현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형태에는 의미가 없다. 어떤 형태이거나 크기라도 점의 기능이 있다면 점이라 할 수 있다. Victor Bellaish는 다양한 불규칙적인 점을 균집으로 배열하여 운동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Sheila Maloney는 검은 원피스에 흰색 투명재질의 원단을 덧붙여 재질의 중첩(重疊)의 효과로서 명암과 원근감을 표현하였으며, 반대로 10 SONO 10는 원단을 컷팅하여 착용한 옷과 다른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등근 점을 표현하였다[그림 5].



그림 1. 점의 위치대비를 응용한 디자인[9]



그림 2. 중량감과 확장된 공간감을 표현[10]



그림 3. 작은 점에 의한 균집과 확산의 효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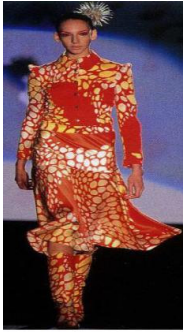


그림 4. 불규칙한 형태의 점구성 디자인[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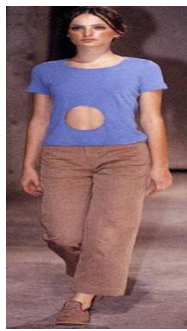


그림 6. 다양한 질감으로 표현된 점[15][16]

그림 5. 패치워크와 컷팅을 응용한 다른 차원의 점 표현[13][14]

TWIST에서는 장식에 사용되는 기법들인 비딩을 (beading) 통한 점의 다양한 촉각적, 시각적 질감의 표현하였으며, Maurizio Pecoraro는 프린트된 패턴을 사용하여 점을 찍지 않고 점을 표현하는 네가티브한 점과 포지티브한 점 구성의 기법[5]을 보여주었다. 점을 둘러싼 바탕 면과 점의 문양을 대비시켜 시각적 질감을 대비시킨 점 구성의 작품을 보여주었다[그림 6].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점구성의 가장 일반화된 양식은 도트패턴(dot pattern)이라고 할 수 있다. Valentino는 다양한 직물의 도트패턴을 사용하여 소재에 따른 조형미의 변화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다. 투명한 시폰소재와 불투명 니트 직물을 상하로 조화시켜 점구성 질감의 대비효과를 보여주거나, 스텁글로 도트패턴을 브레이드한 소재에서 나타나는 촉감과 광택의 변화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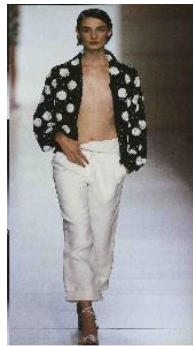


그림 7. 소재의 질감을 대비시킨 표현 방법[17]

기초조형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지각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게슈탈트의 원리를 잘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도 제시되었다. 인간은 각각의 형상들을 단순한 부분이 아닌 의미 있는 전체로서 조직해서 점을 다른 시각 차원의 형태로 인식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제시되었다. Tokyo 1st의 작품은 작은 점이 일렬로 배치되어 점구성이지만 점 하나하나를 인식 하기보다는 선으로 느껴졌

으며, Paola Frani의 작품에서와 같이 같은 크기점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이 하나의 면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는 게슈탈트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I.S. Sunao Kuwahara는 점의 대소에 따라 강하거나 약한 질감으로 표현되는 시각적 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크기의 점을 서로 대비적으로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면을 표현하였다 [그림 8].

기초조형의 상관적인 요소인 색채는 채도와 명도로서 무게감이나, 깊이감에 의한 원근, 수축과 팽창의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EXTE나 FENDI에서는 점의 크기나 갯수의 차이에 따른 무게감의 불균형을 색상을 사용하여 균형된 구성으로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그림 9].



그림 8. 각각의 점보다는 전체의 구성으로 선이나 면으로 인식되는 게슈탈트의 원리를 응용한 디자인 들 [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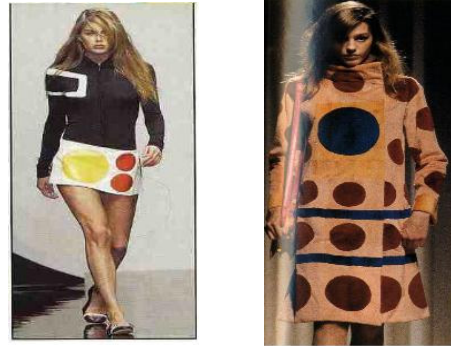


그림 9. 색상이 주는 무게감이나 팽창감 이용한 점구성 디자인[21][22]

2. 선구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문양

조사 결과 점과 동시에 선도 패션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선은 면이나 입체, 공간을 만들고 부피와 깊이를 줄 수 있다. 또한 선으로 명암이나 강약을 줄 수 있고, 부드럽거나 딱딱함, 차갑거나 날카로운 감정과 느낌을 표현 할 수도 있다. 선은 그리는데 사용된 재료에 따라 다양한 질감을 표현한다. 재료에 따른 질감적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의도 이상의 추상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다. 특히 추상적 경향을 가진 작품일수록 선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복식에서 선은 신체를 분할하여 신체의 새로운 프로포션을 만들거나, 다양한 질감의 변화에 의한 문양구성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선은 크게 곡선과 직선으로 나뉜다. 또 교접되지 않는 선, 교접되는 선, 교차하는 선, 열려진 선과 닫혀진 선으로 분류 할 수 있다[7].

I.S.Sunao Kuwahara, Salvatore Ferragamo, Gianfranco Ferre, Y-3, Ralph Lauren, Tei Johjima등에서는 수평선, 평행선, 사선 등의 교접되지 않는 선을 응용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선은 수평선에 비해 불안정하지만 변화가 많으며 역동적이다, 운동감에서 공간을 가르듯한 수직선과는 달리 활동력이 있는 현대적이고 젊음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져 주로 Ralph Lauren, Tei Johjima 같은 캐주얼이나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10].



그림 11. 교점된 사선을 응용한 디자인[27][28]



그림 10. 교점되지 않은 선을 응용한 디자인[23-27]

Bill Blass는 뻗어가면서 서로 교점되는 사선을 사용하였다. 굵은 선과 대비되는 가는 사선을 서로 교차시키거나 멈추어, 집중과 분산으로 자유 분방한 운동감과 공간의 균형적 배치를 잘 표현하고 있다[그림 11].

그림 12. 선의 굵기와 간격의 변화를 응용한 디자인 [29-32]

CIVIDINI, MISSONI, Bill Blass, Antonio Marras, 등은 선의 굵기를 이용하여 농담을 만들거나 선의 강약을

이용한 울동감을 표현하였다. 굵은선은 강한 힘, 가는선은 날카로우며 섬세하고 스피드한 느낌을 준다. 또한 굵은 선은 앞에, 가는 선은 먼 방향에 있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Antonio Marras는 같은 폭의 선 구성 중에 다른 굵기의 선을 넣으면 효과가 한층 더 강조 시켰다. 또한 반복되는 평행의 검은 선(포시티브한 선 : positive line)은 선과 선사이의 흰선(네거티브한 선: negative line)을 만드는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특히 Bill Blass는 선의 굵기를 서서히 변화 시키므로서 농담의 인상을 만들었으며, 동시에 그 강약에 의해 공간의 시각적 움직임이 생겨나는 디자인을 시도하였다[그림 12].



그림 13. 닫혀진 선을 응용한 디자인[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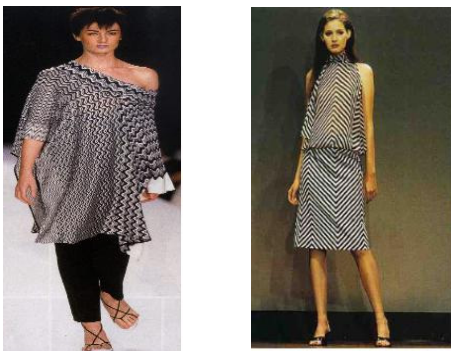


그림 14. 파상선의 반복에 의한 요철 효과[35][36]

EXTE와 Sport Max에서는 닫혀진 곡선인 파 직사각의 선을 다양한 구도로 반복적으로 구성한 디자인을 제

시하였다[그림 13]. MISSONI와 Pené Lezard는 지그재그의 파상선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사용함으로써 요철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MISSONI는 파상선의 각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미세하게 변화되는 재질감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으며, Pené Lezard는 큰 각도의 파상선선을 사용하여 면의 격임과 같은 큰 입체감을 주었다[그림 14]. 또한 선은 다양한 질감의 표현에 의해 다양한 추상적 감정이나 느낌이 표현된다. 패션디자이너들도 선의 다양한 질감을 추상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Martine Sitbon은 불규칙한 두께의 선이나 동양의 수묵화 같은 변진 듯한 농담을 응용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Hussein Chalayan은 검은 색 연필을 이용한 반복된 선 작업으로 일정 영역이 재질감을 갖으므로서 면으로 보이는 게슈탈트의 원리가 적용된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Hiromichi Nakano는 다양한 색채의 털실로서 선구성을 시도하여 강렬하지만 포근한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15].



그림 15. 다양한 재질로 표현된 선[37][38][40][49]

선구성에서 색채의 속성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명도이다. 선의 굵기나 길이가 일정 하면 밝은색의 선은 짙은 색의 선 보다 더 가까이 보인다. 또한 밝은색의 선이 더 확장되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갖는다. Nina Ricci는 색상의 명도 차이와 선두께를 조합한 선구성 작품을 보여주었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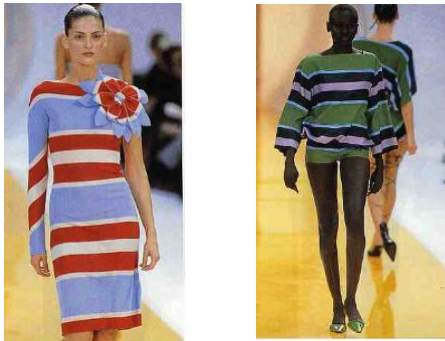


그림 16. 색상의 명도 차이를 응용한 디자인[41]

3. 면구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문양

조형의 출발은 점·선 이지만 점과 선이 모이면 면으로 발전된다. 점과 선 모두 지각되는 거리나 굵기, 거리에 따라 면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또 주어짐 공간을 선에 의해 분할함으로써 만들어지거나 2개이상의 면의 관계에 의해 다양 새로운 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2차원에서 면의 상관관계에 따른 생성원리는 음과 양의 전환, 분리와 접근, 겹침, 침투, 통합, 공제, 교차, 합치 등이 있다[7].

많은 디자이너들이 균형있는 면 분할을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했고 수리적인 수열과 분할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Vestium Officina, Loewe는 수직·수평선을 사용하여 피보너치 수열(Fibonacci Sequence)에 의한 비례 분할을 그대로 옷에 적용하는 기법을 보여주었다[9]. 반면 Ralph Lauren은 수직, 수평선이 같은 넓이로 규칙적으로 반복된 분할을 사용하여 통일감이 있으나 비례감이 없어 단조로운 보수적인 이미지의 면 분할을 표현하였다[그림 17].

Emporio Armani는 규칙적인 면 분할에서 오는 단조

로움을 무채색의 명도대비를 이용해서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특히 Kina Fernandez의 작품에서는 무채색 명도대비가 되는 광택이 있는 사각 재료를 패치워크기법으로 구성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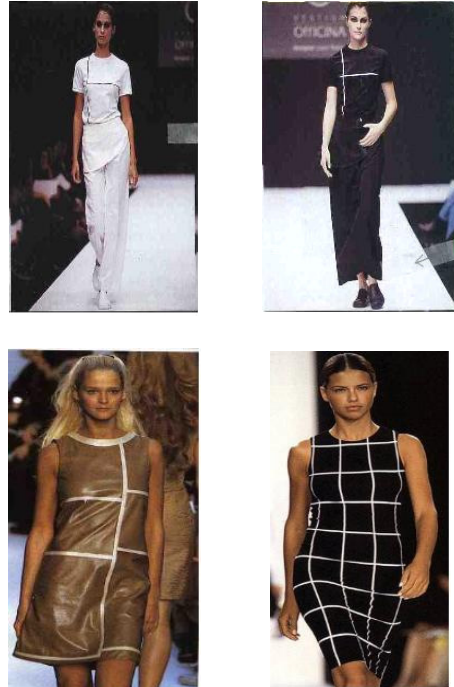


그림 17. 수리적 면 분할을 응용한 디자인[42-44]



그림 18. 무채색의 명도 대비와 질감을 응용한 면구성 [45][46]

TSE는 겨울 시즌에는 직선과 직선을 사용한 면구성을, 여름 시즌에는 직선과 곡선을 사용한 면구성을 응용한 작품을 제시하였다[그림 19]. 선에 의한 면구성 뿐만 아니라 기본 도형인 원·삼각형·사각형을 사용한 면구성 작품도 TSE, Versus의 작품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작품들은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본적인 기하학 형태를 주제로 한 구성이라도 이들의 구성·배열·접침에 의해서 인간에게 다양한 형태로 인지 될 수 있고, 또 어떤 배색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인지 될 수 있다는 계슈탈트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20].



그림 19. 직선과 곡선을 사용한 면구성[47][48]



그림 20. 기본도형을 사용한 면구성[49][50]

IV. 결론 및 제언

2000년도 이후 2010년까지 프레타 포르테에서 발표된 작품들을 조사한 결과 특히 2000년 S/S 시즌 콜렉션과 2004 S/S 시즌 까지를 중심으로 기초조형의 기본요소인 점·선·면을 기본 모티브로 사용한 문양들이 콜렉션에 많이 제시되어 트렌드의 한 부분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지역적으로는 뉴욕 콜렉션에서 이러한 모티브를 사용한 디자이너들이 타 지역보다 주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초조형 요소를 사용한 테마가 모던하고 세련된 도회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몇몇 미국디자이너들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는 테마였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과거의 기초 조형요소를 사용한 문양들은 돗트패턴이나 스트라이프 패턴, 체크패턴들과 같이 일정 요소를 반복 사용하는 정형적인 문양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연구 결과 2000년에서 2004년까지를 중심으로 기초조형적 특성을 중시하는 미니멀리즘이나 공간 왜곡과 변형 같은 표현방식이 유행한 미술사조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문양디자인이 적극적으로 패션에서 시도 되었다. 특히 앞서 언급된 몇몇 디자이너들은 의상을 한 폭의 캔버스화 하여 현대 미니멀리즘의 회화작품의 이미지로 디자인한 문양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예술과 패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면,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으로 지속되리라 사려 되고 패션이 회화를 넘어서는 시대도 예측할 수 있다고 사려된다.

각 디자이너들이 표현한 작품들의 요소별 조형적 특성을 세밀히 살펴보면, 점구성을 응용한 작품들은 점의 위치, 방위, 중량감의 시각적요소를 구사하여 움직임이나 공간감의 변화가 느껴지게 하거나 활동감을 느끼게 한 작품들과 계슈탈트의 원리들을 직접 구사한 작품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선구성을 응용한 작품은 다양한 굵기의 선과, 간격을 이용하여, 선의 열림과 폐쇄, 선과 선의 교점, 교차를 구사한 작품들이 보여졌다. 또한 선의 질감을 표현하는 기법들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구사되었다. 면구성을 응용한 작품들은 1차적으로 선에 의한 면분할을 응용한 작품들이 나왔으며, 특히 수열에

의한 분할 선을 의상에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면구성은 다양한 분할 방법에 색채배합이 더해져 다양한 패턴을 제시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경향은 패션디자인이지만은 기초조형의 기본요소 및 원리를 원칙적으로 단순히 표현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더우기 신인 디자이너들이나 Bill Blass, Ralph Lauren 등과 같은 대가들 작품 모두에서 기초조형 교과서에 예시된 평면 조형의 기본 작품들을 의상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 같은 디자인들도 의외로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디자인에서도 기초조형은 조형예술 구현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조형이란 초보나 입문의 개념을 넘어서 어떤 조형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와 시각적 공통 언어의 습득을 의미한다는 것으로서 조형을 다루는 사람이 평생 습득해야 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8]. 따라서 패션디자인 교육에서도 조형의 원리와 보편적 진리를 깨우치도록 패션디자이너로서의 기본 토양을 마련해 주는 기초조형과정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복식에서 기초조형의 요소와 원리는 입체와 평면적인 특성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분석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점·선·면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평면적인 문양디자인의 작품들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본 논문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이길순, “관계적충기법의 입체디자인조형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3권, 제2호, pp.179-189, 2002.
- [2]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pp.11-12, 2003.
- [3] 칸딘스키, 와실리, 차봉희역,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pp.4-5, 2001.
- [4] 김인혜, 기초디자인-점/선/면, 미진사, pp.11-38, 2004.
- [5] 이시꾸라 나옴이, 김학성.조열 역, 평면구성, 조형사, pp.23-26, 1999.
- [6] 한국디자인 도서 출판위원회편, 기초디자인, 안그라픽스, pp.8-58, 2008.
- [7] 권상구, 기초디자인-평면구성을 중심으로-, 미진사, pp.46-49, 1993.
- [8] 문찬, 김미자, 신희경, 임남숙, 이상훈, 기초조형 Thinking, 안그라픽스, pp.143-151, 2010.
- [9] Fashion News -2000/2001 f/w, “Ji Sander,” Vol.62, p.108-109, 2000.
- [10] Gap press- 2002 s/s, “Cividini,” Vol.39, p.108, 2001.
- [11] COLLEZIONI- 2000 a/w, “Bill Blass,” Vol.76, p.202, 2000
- [12] Gap press- 2001/2002 a/w, “Victor Bellaish,” Vol.35, p.96, 2001.
- [13] Gap press- 2001 s/s, “Sheila Maloney,” Vol.32, p.199, 2000.
- [14] Fashion news- 2000 s/s, “10 SONO 10,” Vol.59, p.101, 1999.
- [15] BOOK MODA,-2004 S/S, “TWIST,” No.70, p.179, 2003.
- [16] Fashion News, -2003 s/s, “Maurizio Pecoraro,” Vol.81, p.40, 2002.
- [17] Gap press,- 2001 s/s, “VALENTINO,” Vol.32, p.64, 2000.
- [18] Fashion News- 2001/2002 a/w, “Tokyo 1^{er},” Vol.71, p.132, 2001.
- [19] Gap press- 2001 s/s, “Paola Franii,” Vol.31, p.111, 2000.
- [20] Fashion News-2001/2002 a/w, “I.S. Sunao Kuwahara,” Vol.71, p.67, 2001.
- [21] BOOK MODA- 2004 S/S, “EXTE,” N.70, P.203, 2003.
- [22] Gap press- 2000/2001 a/w, “FENDI,” Vol.27, p.54, 2000.
- [22] Fashion news- 2000 s/s, “IS. Sunao Kuwahara,” Vol.59, p.51, 1999.
- [23] Collezioni Donna- 2003, s/s, “Ferrgamo,” p.5, 2002.

- [24] Gap press- 2004 s/s, "Y-3," Vol.55, p.124, 2003.
- [25] Fashion news- 2001 s/s, "Ralph Lauren," Vol.65, p.38, 2000.
- [26] Book Moda- 2004 s/s, "Ralph Lauren," No.70, p.322, 2003.
- [27] Fashion News- 2001/2002 a/w, "Tei Johjima," Vol.71, p.109, 2001.
- [28] Gap press- 2000/2001 a/w, "Bill Blass," Vol.27, p.6, 2001.
- [29] Gap press -2001 s/s, "CIVIDINI," Vol.31, p.90, 2000.
- [30] Gap press- 2000 s/s, "MISSONI," Vol.23, p.82, 1999.
- [31] Gap press- 2000 s/s, "Bill Blass," Vol.23, p.138, 1999.
- [32] Collezioni Donna- 2000/2001 f/w, "Antonio Marras," P.65, 2000.
- [33] BOOK MODA- 2004 s/s, "EXTE," No.70, p.203, 2003.
- [34] Gap press- 2000/2001 a/w, "Sport Max," Vol.27, p.75, 2000.
- [35] Gap press- 2000 s/s, "MISSONI," Vol.23, p.82, 1999.
- [36] Collezioni Donna- 2001 s/s, "Pen Lezard," p.372, 2000.
- [37] Collezioni Donna- 2000/2001 f/w, "Martine Sitbon," p.314, 2000.
- [38] Collezioni Donna- 2001 s/s, "Martine Sitbon," p.374, 2000.
- [39] Gap press- 2001 s/s, "Hussein Chalayan," Vol.32, p.145, 2000.
- [40] Fashion news- 2000/2001 a/w, "Hiromichi Nakano," Vol.60, p.32, 2000.
- [41] Gap press- 2000 s/s, "Nina Ricci," Vol.24, p.70, 1999.
- [42] Collezioni Donna- 2003 s/s, "Vestium Officina," p.17, 2002.
- [43] Gap press- 2000/2001 a/w, "Loewe," Vol.28, p.48, 2000.
- [44] Fashion news- 2005 s/s, "Ralph Lauren," Vol.65, p.52, 2004.
- [45] Gap press- 2001/2002 a/w, "Emporio Armani," Vol.35, p.71, 2001.
- [46] Gap press- 2000/2001 a/w, "Kina Fernandez," Vol.27, p.187, 2000.
- [47] Gap press- 2001 s/s, "TSE NEW YORK," Vol.31, p.149, 2000.
- [48] Gap press- 2000/2001 a/w, "TSE NEW YORK," Vol.27, p.115, 2000.
- [49] Fashion news- 2001 s/s, "TSE, NEW YORK," Vol.65, p.44, 2000.
- [50] Collezioni Donna- 2000/2001 f/w, "Versus," p.166, 2000.

저 자 소 개

조 정 미(Jung-Mee Cho)

정희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이학사)
- 1992년 8월 :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이학 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관심분야> : 문화예술콘텐츠-패션, 환경분야